

# Dickens의 *Hard Times*에 나타난 사회비평

## — 산업사회의 지배이념과 교육을 중심으로 —

황규호\*

### I

19세기 영국 빅토리아조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Charles Dickens(1812-70)의 사회 비평(social criticism)은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며, 그가 소설가로서 시종일관 견지한 자세이다. 그가 작품활동의 후기에 접어들어 발표한 *Hard Times*(1854)는 빅토리아조 시대의 산업사회와 노동자의 현실과 교육의 문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그린 사회소설이다.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인 1850년대는 불안과 혼란이 지배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초기가 1848년에 채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의 실패로 막을 내리고, 1851년 세계박람회의 개최를 계기로 빅토리아 시대의 중기로 접어들며 안정과 번영의 시기로 접어든 시기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Dickens는 암울한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하는 *Hard Times*를 비롯한 일련의 사회소설을 발표하여, 당시의 자본주의가 점차 공고화되어 가는 시대 상황을 비판적이며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Hard Times*는 Dickens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한 Ruskin을 제외하고는 당대의 비평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대체로 'sullen socialism'으로 평한 Macaulay의 평가에 준하는 비평이었다.(Page, 186) 그러나 금세기에 접어들어 George Bernard Shaw와 그의 뒤를 이어 F. R. Leavis가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하여 Dickens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F. R. Leavis는 1948년에 출판된 *The Great Tradition*에서 Dickens의 *Hard Times*를 인간의 삶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보여주는 영국소설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정전의 하나로 위치 지우면서, 빅토리아 시대의 문명의 비인간화를 포괄적 비전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Leavis, 259)

---

\* 본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Dickens의 후기 소설은 여러 계층의 많은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그 인물들의 삶이 사회구조와 관련을 맺고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850년대에 쓰여진 *Bleak House*(1853), *Hard Times*, *Little Dorrit*(1857)의 세 작품은 국가 권력 기구나 사회제도가 개별주체로서의 인간의 삶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양상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Bleak House*의 Richard Carstone, *Hard Times*의 Stephen Blackpool, *Little Dorrit*의 Arthur Clennam 등은 국가권력과 사회체제에 희생되거나 폐해하는 대표적 인물들로 나타난다. Dickens의 초기 소설의 인물들은 독특하고 비관련성의 존재로 인식되지만, 후기의 인물들은 개별적으로는 사실적이고 생생하고 기괴한 인물이지만 사회의 구조를 전하는 진정한 주인공으로 파악된다.(Eagleton, 129-30) 따라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간에 관계는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인물관계에 대한 고찰은 Dickens의 사회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본 논문은 Dickens의 *Hard Times*에서 나타난 사회비평의 주제인 빅토리아조 산업사회의 지배이념과 교육을 인물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 그의 사회비평의 본질을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 II

디킨즈의 대부분의 소설들이 전통적인 대도시 런던을 배경으로 중류계급과 하층민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Hard Times*는 유일하게 공업도시를 배경으로 노동자 계급의 문제를 다룬 소설로 주목 받고 있다. 이 소설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가상의 공업도시 Coketown은 Dickens가 이 작품을 집필하기 직전에 공업도시 Preston에서 노동자의 실태와 방직공장의 파업현장을 취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Preston을 모델로 하였다고 여겨진다. 이 산업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업 도시 Coketown을 배경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인간 관계는 노동 계급과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간의 관계로, 이 두 계급간의 관계는 지배 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의 피지배 계급인 노동계급에 대한 침략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고찰하여 Dickens의 산업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Coketown은 19세기 영국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기계와 높은 굴뚝의 도시’(a town of machinery and tall chimneys)로 산업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공업도시이다. 공장의 굴뚝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재는 도시 전체의 색깔을 야만인의 얼굴 (the painted face of a savage) 처럼 부자연스럽고 검붉게 만들며, 도시의 하천은 공장에서 흘려보낸 염료 등으로 인하여 고약한 악취를 풍기며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다. 또한 공장의 소음은 하루종일 도시 건물의 창을 흔들어 놓는 공해에 찌들고 소음이 가득한 Coketown의 묘사는 빅토리아조 시대의 전형적인 북부 공업도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Dickens가 묘사하는 이 Coketown의 거리와 건물 그리고 주민의 삶은 획일성과 기계성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It contained several large streets all very like one another, and many small streets still more like one another, inherited by people equally like one another, who all went in and out at the same hours, with the same sound upon the same pavements, to do the same work, and to whom every day was the same as yesterday and tomorrow, and every year the counterpart of the last and the next. (*Hard Times*, 65)

이와같은 Coketown의 거리와 건물의 모습과 주민의 삶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양상은 기계화와 대량생산을 추구한 산업혁명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Dickens는 단조롭게 상하운동을 하는 중기기관의 피스톤을 우울한 광증에 사로잡힌 코끼리의 머리로 비유함으로서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도시와 도시주민의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나타낸다. 어제와 내일이 똑같고 작년과 내년이 똑같은 노동자들이 심하게 일해야 하고 교회와 감옥과 병원과 시청의 건물이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Coketown의 획일성은 최대이윤의 추구라는 자본주의의 원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what you couldn’t state in figures, or show to be purchaseable in the cheapest market and saleable in the dearest, was not, and never should be, world without end’(66)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계화와 대량생산을 바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꾀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이 작품에서 Dickens의 비판의 대상으로 나타난 비인간적이고 획일화된 공업도시의 모습, 열악하고 불결한 노동환경과 생활조건, 획일화되고 고된 노동자의 일상생활 등은 당시의 산업화된 영국이 안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본질적으로 물질주의적이며, 그 존재의 목적을 최대의 이윤을 실현함에 두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인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노동자의 존재는 임금을 대가로 노동력을 상품화한 하나의 기계의 부속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한다. 소설 속에서 이러한 노동자들이 ‘Hands’로 비유되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노동자에 대한 이 같은 지배적 인식은 공업도시에서의 인간의, 또는 노동자의 존재조건에 대해 끔찍할 정도로 단조롭고 기계화된 비인간적 삶을 강요하고 있다. Dickens가

묘사한 Coketown의 짜들은 공해와 횡일화되고 기계화된 삶의 현장은 당시의 노동자들이 고난의 국면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준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나날들이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되는 열악하고 짜들은 노동자들의 삶은 그들을 기계의 부속과 같은 존재로만 인식하여, 그들로부터 최대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최대의 이윤을 남기려는 자본주의 기업가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해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공업도시 Coketown을 만들고 그 주민의 삶을 지배하는 지배계급은 19세기 들어 정치·경제적으로 그 지배권을 결정적으로 확립한 부르주아 계급이다. 공업도시 Coketown을 지배하는 계층은 자본주의 기업가들인데 Dickens는 비인간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이들 자본주의 기업가들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Coketown의 부르주아 계급이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의 억제하면서도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 는 최대로 보장받으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Surely there never was such fragile china-ware as that of which the millers of Coketown were made. Handle them never so lightly, and they fell to pieces with such ease that you might suspect them of having been flawed before. They were ruined, when they were required to send labouring children to school; they were ruined, when inspectors were appointed to look into their works; they were ruined when such inspectors considered it doubtful whether they were quite justified in chopping people up with their machinery; they were utterly undone, when it was hinted that perhaps they need not always make quite so much smoke. (145)

이는 이 시기의 자본주의가 부를 증진하려는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국가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자유방임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당대의 현실을 보여주며, 빅토리아조 시대의 경제원리인 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인간간의 유대관계를 끊고 무자비한 자유 경쟁 속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회로 만들어내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Hard Times*에서 산업사회의 새로운 귀족이라 할 수 있는 부르주아 계급을 대표하는 인물은 Joshua Bounderby이다. Coketown의 지배계층의 핵심을 이루는 기업가 Bounderby는 빅토리아조 산업 자본주의의 본질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자신보다 신분이 높으나 가난한 Mrs. Sparsit을 가정부로 고용함으로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기 자신에 관해, 사회의 밑바닥에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자화자찬하는 교만한 인물이다. Bounderby에

대한 Dickens의 묘사는 그가 위선에 가득 찬 인물임을 보여준다. 놋쇠로 된 트럼펫 같은 목소리에 풍선처럼 부풀어져 날아갈 듯한 모습을 지닌 Bounderby가 떠벌리는 거짓말은 자신의 자조자립과 자수성가에 대한 자랑이다. 이러한 Bounderby라는 인물은 돈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부르주아 계급의 대표이다. 이러한 인간형의 기업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축취적 관계로 귀착된다.

복음주의가 부르주아 계층의 이데올로기로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이념적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Bounderby의 자수성가의 신화가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자본주의 기업가인 Bounderby는 자기 자신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자수성가에 성공했다는 내력을 입버릇처럼 떠벌림으로서 노동자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허위의식을 심어주어 그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최대의 노동력을 보장하려는 허위의식인 것이다. 이는 Bounderby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노동자의 권익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to be set up in a coach and six, and to be fed on turtle soup and venison, with a gold spoon,’(10)이라고 비난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그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그들이 분수에 맞지 않게 호사를 원한다고 비난함으로써 묵살한다. Bounderby의 자수성가의 신화는 당대에 널리 퍼진 자조자립을 권장하는 사회풍조를 반영하고 있다.

자조자립과 자수성가에 대한 허위의식은 당대의 복음주의(Evangelicalism)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사회풍조는 Samuel Smiles가 그의 *Self-Help*(1895)라는 저서에서 근면, 겸약, 자기수양을 권면하는 설교와 맥을 같이하며, 자수성가와 자조자립을 권장하는 금언이 19세기의 가장 널리 애용된 금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Altick, 170) 그러나 빈곤을 당사자의 게으름이나 방탕한 생활 탓으로 돌리는 이런 논리는, 당대 중산층 사이에 폭넓게 퍼져 있었던 빈곤을 당사자 탓으로 치부하는 풍조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Bounderby의 자수성가의 신화는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와 종교의 관계는 왜곡된 복음주의의 도덕률에 기초하여 종교가 노동자를 억압하는 관계로 발전한다. Coketown의 금주협회(Teetotal Society)(66)는 노동자들이 술에 취하곤 한다는 사실을 도표로 보여주고 국회의 매회기마다 노동자들을 강제로라도 종교적으로 만들 법령의 제정을 청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산출하는 종교는 지배권력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us Apparatus)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왜곡된 종교의 도덕률은 종교와 노동자 계층간의 괴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복음주의는 노동자들이 게으르고 방탕하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복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왜곡시키는 Bounderby가 대표하는 Coketown의 부르주아 계급들은

노동자들을 전적으로 나쁜 놈들(bad lots altogether)이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자기네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부류라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신선한 버터만을 사고 모카커피만을 마시며 고기의 좋지 않은 부분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항상 불만스러워하는 다루기 어려운 족속이라고 여기고 있다.

부르주아계급의 자수성가에 대한 ‘허구’는 실상 ‘fictions that support and sustain the exercise of middle-class power’(Bodenheimer, 189)로서 부르주아계급이 하층민에 대해 지니고 있는 힘이 물리적·경제적 힘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급기야는 자수성가했다는 그의 신화가 거짓말임이 탄로 낚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서 엿보이듯, 그는 도시 전체에 퍼진 허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Dickens는 Coketown의 일반 주민들이 Bounderby를 ‘the Royal arms, the Union-Jack, Magna Charta, John Bull, Habeas Corpus, the Bill of Rights’(84)로 여기며 자랑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위선적인 기업가인 Bounderby에 대하여 Coketown의 일반 중류계급의 갖고 있는 인식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현실을 보여준다. Bodenheimer는 이 같은 중류계급의 의식의 문제를 이 작품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핵심적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다.

Dickens's real target is the kind of social knowledge exemplified by the blue books and perpetuated in all kinds of middle-class discourse, including the social novel itself.  
(Bodenheimer, 190)

이러한 기업가들의 의식에 비추어진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존재가치를 단지 생산 요소의 하나로 파악하고 단순한 기계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이 팽배해 있는 한, 공리주의자 Gradgrind의 의문과 같이, 왜 노동자들이 책을 읽는지, 왜 도서관이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Gradgrind와 같이 노동자를 자기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Hands’로나 여기는 지배계급이나 중류계급의 인식은, 노동자의 삶을 더욱 더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도서관 출입과 독서에 대한 열의 등의 묘사를 통해 Dickens가 어느 누구보다도 노동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노동 계급의 문제와 그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이 Stephen Blackpool이라는 한 노동자를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Dickens가 Stephen Blackpool을 노동자계급의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많은 비평가들에게 혹평의 대상이 되어왔다. Stephen은 그의 착하고 우직한 품성으로 고용주와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복종하는 인물로 비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Arnold Houser는 Stephen이 기업주에게 고분고분한 ‘충견의 도덕’(dog’s morality)을 소유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 비판하고(Hauser, 119),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한 F. R Leavis도 그를 ‘백인의 착한 노예’(a white man’s good nigger)와 같은 인물이라고 비판한다.(Leavis, 279)

Dickens는 Stephen을 당대의 전형적인 노동자의 모델로 여기고 있지 않으며 그저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한 노동자로 묘사하고 있다. Dickens는 평범하고 착한 성품의 Stephen이 Bounderby와 같은 비인간적인 기업가의 횡포와 선동적인 노동 운동가인 Slackbridge의 배타적인 노동조합에 의해 회생되는 상황을 보여주어 산업사회의 비인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설정을 고려하면, Dickens가 이 소설에서 Stephen을 노사관계와 노동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비인간적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간성이 착한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 Dickens가 노동자들을 묘사한 부분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묘사가 많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노동자들의 도서관 이용이나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학식을 축적한 독학 노동자, 질서 정연한 노동자 집회의 모습 등은 노동자들의 건실함을 Coketown의 왜소하고 비틀린 모양과 대조하여 그려내고 있다. 그러므로 Dickens가 당대의 전형적인 노동자계급으로 부적합한 Stephen이란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비인간적인 기업주와 노동조합과의 선명한 대조를 부각시키려는 그의 특유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Dickens가 비평가로부터 비난을 받는 또 하나의 부분은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Slackbridge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이다. 노동자보다도 못한 부정적인 노동운동가에 대한 묘사는 Dickens가 빅토리아 시대의 노동운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판적 시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인물을 노동 운동의 지도자로 추대해야 하는 조직화되지 못한 당대의 노동자들의 역사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Dickens가 노동조합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공리주의체제와 유사하게 자기의 체제 외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폐쇄성을 지닌 조직체라는 점이다. Slackbridge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이 배타적이고 선동과 투쟁 일변도의 사회제도로서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노동자를 억압하는 제도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Slackbridge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Stephen을 노동계급의 배신자로 규정짓고, 조합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Stephen을 추방하는 행태는 노동조합의 배타성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Slackbridge와 같은 직업적 노동 운동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그들 대로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Dickens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의 본질이 노동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것임과 그 지배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일반 중류계급의 상황이 노동계급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Dickens가 Bounderby라는 한 개인의 악덕 기업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산업사회의 전 지배계급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제로서 산업사회의 문제를 조망하고 있음은 그의 사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I

이 소설은 산업사회의 문제를 주된 문제로 다루었다기 보다는 Gradgrind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공리주의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의 공리주의 교육은 산업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종하고 산업 체제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보완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은 Gradgrind가 운영하는 학교와 기업간의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Gradgrind가 운영하는 학교는 Bounderby가 지배하는 산업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Dickens는 Gradgrind라는 공리주의자가 운영하는 학교를 통해 교육기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력을 생산하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주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act(사실)만을 강조하고 Fancy(상상)를 금기시하는 공리주의 교육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교육 외에는 필요 없다는 융통성 없는 Gradgrind의 공리주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린 학생을 경제체제의 도구로 만드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 지배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나타냄으로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리주의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Dickens의 Gradgrind의 공리주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Althusser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력의 재생산, 즉 노동력을 계속 공급하고 체제에 복종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교육기구를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Althusser는 그의 논문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에서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들 중에서 자본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로 기능 하는 것은 학교라고 말한다. Althusser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교육 기구인 학교는 모든 계급의 아동들을 데려다가 국어, 산수, 자연 등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실행적 지식이나 또는 도덕과 같은 순수한 그대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직접 주입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파악한다. 그는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도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로 기능 하는 학교는 가정이라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와 결합하여 생산 관계 속의 착취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한다.(Althusser, 155) 이같은 Althusser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의 하나인 학교의 기능과 일치되는 사회제도가 이 소설에 나타나는 공리주의자인 Gradgrind가 관리 감독하고 교사인 M'Choakumchild가 가르치는 학교인 것이다.

소설 서두의 교실 장면은 Gradgrind가 장학관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과 나누는 문답으로 시작되는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장면으로 공리주의 교육의 실상을 보여준다. Gradgrind는 교사에게 철저하게 사실과 이성에 기초하여 교육할 것을 주문한다. 이 소설에서 Dickens가 문제 삼은 것은 철저하게 사실과 이성에 기초한 Gradgrind의 교육관이다. 이러한 교육관의 소유자인 Mr. Gradgrind는 꼭마단 출신의 Sissy Jupe이라는 여학생에게 말(horse)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라고 질문하여 학생을 당황케 만든다. 그는 만족한 답변을 Bitzer라는 학생에게 듣게 되는데 Bitzer의 말에 대해 내리는 답변은 다음과 같다.

‘Quadruped. Graminivorous. Forty teeth, namely twenty-four grinders, four eye-teeth, and twelve incisive. Sheds coat in the spring; in marshy countries, sheds hoofs, too. Hoofs hard, but requiring to be shed with iron, Age known by marks in mouth.’ (50)

이러한 교육은 학생을 ‘the inclined plane of little vessels then and there arranged in order, ready to have imperial gallons of facts poured into them until they were full to the brim’ (47-8)로 만드는 주입식 교육이다. 이러한 사실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인 M'Chokumchild 역시 같은 주입식 교육의 원리에 의해 제조된 제품으로 비유되고 있다. 인간성을 함양하고 정서를 고취시키는 교육은 전혀 부재하고 지식에 관련된 교육만을 받고 학생에게 같은식의 교육을 실행하는 M'Choakumchild선생의 이름이 choke와 child의 합성한 것으로 상징되듯이, Dickens는 어린 학생을 질식시키고 억압하는 교육제도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지식 위주의 교육을 실행하는 학교가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자본주의 산업체제와 맷는 관계라 할 것이다. 이 M'Choakumchild선생은 자신이 교육받은 방식과 똑같은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여 자본주의 산업체제에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act만을 강조하는 이 교육철학은 Bounderby와 같은 물질주의와 최대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인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교육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중시하는 Gradgrind의 교육의 원칙은 이윤의 추구를 지상의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산업체제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Dickens는 사실(fact)에만 치우쳐서 상상력(fancy)을 상실한 인간을 만드는 사실위주의 교육방식의 문제가 아닌 Gradgrind가 교육을 통해 형성하는 인간형과 Gradgrind의 학교가 사회체제 속에서 갖는 역할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Gradgrind의 학생들은 통계와 수치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 자신을 사회적 주체로 형성하고 있다. Gradgrind의 통계와 수치에 의한 교육이란, ‘이 교실을 하나의 국가로 가정하고, 이 국가에 오천만 파운드의 돈이 있다면 그 국가가 부자가 아니냐?’ 든가 시민이 백만이고 연간 스물 다섯 명만이 길에서 굶어죽는다고 가정할 때 그 비율이 의미하는 바를 묻는 방식을 통해서 통계와 수치로서 세상을 판단하게 하며, 그 돈이 누구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죽는 사람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을 형성한다.

Gradgrind를 만족시킨 Bitzer를 통해서 Gradgrind의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공리주의의 교육에 충실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등장하는 Bitzer가 이를 입증해 준다. Gradgrind가 강조한 통계와 수치에 의한 공리주의적 자본주의의 원칙을 내면화 한 Bitzer가 졸업 후 취직한 곳은 Bounderby의 회사이며 그가 맡은 역할이 노동자의 동정을 살피고 그들을 억압하는 일임은, 교육제도가 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했음을 증명해 준다. 모범생 Bitzer가 기업가들처럼 노동자를 ‘나쁜 놈’(bad lots)이라고 부르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 기업인들과 동일한 인식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학교가 지배계층의 권력을 정당화 시켜주고 강화시켜 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은행 도난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난 Gradgrind의 아들 Tom이 외국으로 도망가기 위해 Sleary 곡마단을 떠나려는 순간 Bitzer가 나타나 Tom을 붙잡는다. Bitzer는 동정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Gradgrind의 간청을 무시하며 완강하게 버티면서 자신은 배운 데로 행동할 뿐이라고 이야기 한다.

To find you taking a position so untenable. My schooling was paid for; it was a bargain; and when I came away, the bargain ended.’ … ‘I don’t dney,’ added Bitzer, ‘that my schooling was cheap. But that comes right, sir. I was made in the cheapest market, and have to dispose of myself in the dearest. (304)

Gradgrind를 만족시켰던 모범생 Bitzer의 이 같은 사고방식이 Gradgrind가 실행해온 교육의 결실로서, 바로 이것이 Dickens가 Gradgrind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다.

이 소설의 서두에서 등장하는 공리주의자 Gradgrind의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모습과 그가 지배

총으로 존재하는 공업도시 Coketown의 횡일화된 모습이 연관되어 독자에게 Dickens가 공리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추어질 수 있다. 또한 Gradgrind의 집에 대한 Dickens의 묘사는 딱딱하고 네모지고 모가나 있는 그의 외모와 특성과 일치시켜 독자에게 뚜렷한 공리주의적인 인상을 심어준다. 그의 저택의 각이 지고 딱딱한 외양이 나타내는 느낌과 동일하게 그 집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삶도 집주인인 Gradgrind의 공리주의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안주인인 Mrs. Gradgrind의 병약한 모습과 남편을 두려워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빅토리아 시대의 가부장제에 억눌린 여성의 삶을 보여준다. 그러나, Dickens가 이 소설에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은 공리주의 그 자체가 아니고, 공리주의자인 Gradgrind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무력함과 행복의 가치를 물질에 두는 그의 물질주의인 것이다. Dickens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려는 Gradgrind의 선의의 마음이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공리공론에 그치고 마는 공리주의를 창문이 없는 천문대에 비유하고 있다. Dickens의 공리주의에 대한 태도는 Gradgrind와 Bounderby에 대해 작가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자본가이며 기업가인 Bounderby에 비하여 Gradgrind에게 비교적 호의적으로 묘사한다. Gradgrind는 친구인 Bounderby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Sissy를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는 등의 선행을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Louisa Gradgrind와 Sissy의 삶의 양상을 통해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삶에 관련되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가가 고찰된다. Louisa의 아버지인 Gradgrind는 의회의 원으로서 그의 인생을 실제적인 면으로만 생각하는 획일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는 ‘A man of fact and calculations’(48)으로 그의 자식 역시 이러한 철학으로 양육한다.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표준에 맞추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며 출세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이 작품의 각 권에서 작가가 명기한 ‘파종’(Sowing), ‘수확’(Reaping), ‘저장’(Garnering)의 제목은 이러한 공리주의자 Gradgrind의 교육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또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radgrind의 딸 Louisa는 30세 연상의 아버지의 친구인 Bounderby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가 통계숫자를 들먹이며 결혼을 권한 탓도 있지만, 사랑하는 남동생 Tom의 취직과 장래를 위해서 Bounderby와 결혼을 결심한 것이기도 하다. Louisa는 Bounderby와의 애정 없는 결혼생활에 대한 반작용으로 Harthouse와 가까워진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Harthouse라는 상류계급 출신의 신사의 유혹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유혹에 거의 넘어가서 함께 도망갈 상황에까지 이르렀지만, 결국에는 그 유혹을 이겨낸다. Harthouse의 유혹을 가까스로 뿌리치고 폭우 속을 달려온 Louisa는 아버지의 철학이나 교육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소리치며 부친의 발치

에 ‘무감각한 덩어리’(an insensible heap)(163)처럼 쓰러진다. Louisa는 그녀의 가정교육과 아버지의 공리주의적 교육방식이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음을 아버지에게 알린다. Gradgrind가 ‘그의 마음의 자부심과 체계의 승리’(the pride of his heart and the triumph of his system)(163)로 간주하던 공리주의와 그 원리에 입각한 교육이 방바닥에 쓰러지는 Louisa와 함께 무너져내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Gradgrind는 Louisa가 남편인 Bounderby를 사랑하지 않음을 알게 되자 그녀의 인생을 그녀의 선택에 맡긴다.

Gradgrind의 아들 Tom은 Louisa처럼 아버지의 교육을 증오하지만 돈에 관해서는 탐욕적인 이기적인 인물로 성장한다. Tom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누이 Louisa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Bounderby와 결혼하기를 은근히 부추긴다. 돈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이를 희생시키기까지 하는 파렴치한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누이의 남편인 Bounderby가 운영하는 은행의 점원으로 취직한다. 그는 방탕한 생활과 게으름으로 빚을 지게 되고 급기야 은행의 돈을 훔친다. 그리고는 Stephen Blackpool에게 누명을 씌운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고 체포의 위기에 놓였을 때 Sissy와 곡마단의 도움으로 해외로 탈출한다. Gradgrind는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 공리주의 교육이 인간성의 배려를 무시한 채 비인간적이고 실제적인 면에만 치우친 교육이라는 것과 그 같이 인간성의 함양을 도와시한 공리주의적 교육이 자본주의 체제에 필요한 Bitzer 같은 인간을 배출하는 또 하나의 인간공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깨우치는 과정을 밟는다.

밝고 생명력이 넘쳐보이는 Sissy는 소설 서두의 교실 장면에서 공리주의 교육의 모범생인 Bitzer라는 소년의 창백한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Bitzer라는 소년과 Sissy의 대조된 모습은 외모상의 차이나 교실에 앉아 있는 상이한 위치에서 비롯하는 명암의 차이에 그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교육 탓에 인간다운 생기를 빼앗긴 학생과 기계적인 교육에 굴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력과 활기로 가득 찬 학생의 대조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에 있어서도 곡마단 출신의 Sissy와 Gradgrind의 Tom을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뚜렷이 드러난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Sissy의 사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이를 이용하는 Tom의 이기심은 공리주의적 교육이 갖는 폐단을 일깨워 준다. Dickens는 Gradgrind의 가정과 곡마단의 가정을 대조 비교하고 있다. Gradgrind의 가정은 학교의 교육제도와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엄격한 가부장제의 가정은 Gradgrind의 또 하나의 교육철학이 실행되는 장소이며 학교와 동일한 사회제도이다. 자녀를 억압하고 훈육하는 가정은 자본주의의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데 협력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장이다.

Sissy는 Sleary 곡마단의 한 단원의 딸로, 그녀는 Gradgrind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하여 공리주의의 오류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Sissy는 Gradgrind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된다. 이는 딸이

정규 교육을 받아서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하는 Sissy의 아버지의 희망에 따른 것이다. Sissy의 교육과정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Sissy는 ‘경제학의 제일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답변을 한다. 그녀가 받은 또 다른 질문은 ‘학급을 한 국가라고 가정하고 이 국가에 오천만 파운드의 돈이 있다면 그 국가가 부자가 아니냐?’ 이었는데 그녀는 누가 그녀 자신도 돈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부자나라인지 여부나 부자 나라에 사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답한다. 또는 시민이 백만이고 연간 스물다섯 명만이 길에서 굽어 죽는다고 제시한 후 그 비율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Sissy는 ‘굽어 죽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백만이든, 그것의 백만 베이든 마찬가지로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Sissy의 답변은 통계와 수치로 세상을 판단하게 하는 허구적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위주의 가치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Sissy의 인간위주의 가치관은 Sleary곡마단이라는 공동체적 인간 사회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품성 내지는 활력이라 할 수 있다. Sissy의 각종 의미는 인간적 친절함과 미덕과 연결되어 있는 Sleary곡마단의 의미와 통하는데, 곡마단은 산업주의와 대립하면서 인간성의 본질적인 생명력과 활기를 대변한다. Gradgrind와 Bounderby가 Sissy의 부친을 찾아 곡마단원이 묵고 있는 술집에 왔을 때 모여든 곡마단원의 모습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미덕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There were two or three handsome young women among them, with their two or three husbands, and their two or three mothers, and their eight or nine little children, who did the fairy business when required. The father of one of the families was in the habit of balancing the father of another of the families on the top of a great pole; the father of a third family often made a pyramid of both those fathers, with Master Kidderminster for the apex, and himself for the base; all the fathers could dance upon rolling casks, stand upon bottles, catch knives and balls, twirl hand-basins, ride upon anything, jump over everything, and stick at nothing. … there was a remarkable gentleness and childishness about these people, a special inaptitude for any kind of sharp practice, and an untiring readiness to help and pity one another, deserving, often of as much respect, and always of as much generous construction, as the everyday virtues of any class of people in the world. (77)

위 인용문은 곡마단원들의 다양한 기술, 순진함 · 협동심 · 상부상조의 미덕뿐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조화된 바람직한 상태를 보여준다. Dickens는 곡마단 집단의 공동체적인 생활이 주는

사랑과 우애, 어린애 같은 순진함, 서로 돋는 마음과 협동심 등등 산업사회에서 상실된 인간의 소중한 덕성들이 천대받는 곡마단 집단에서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곡마단은 산업 조직에 속하지 않는 점차 사라져 가는 집단으로 산업 조직 내에서 찾을 수 없는 ‘세계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일상의 미덕’을 갖추었지만 도태되어 가는 집단인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회로부터 천대받고 점차 도태되어 가는 곡마단이, 오히려 사람이 갖추어야 할 미덕으로 충만한 집단인 것이다. 이 곡마단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Sissy는 아버지가 그녀를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못 잊어 한다. 이러한 모습은 곡마단과 같은 집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인간적인 미덕의 증거이다.

Coketown과 곡마단의 차이는 Sissy가 각각과 맺는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도시의 지배계급의 Bounderby 같은 유력자들은 Sissy를 무식하고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만 미치는 ‘말썽꾸러기’로 여기지만, 곡마단원은 고아 신세가 된 Sissy에 대해 따스한 마음씨를 잃지 않는다. 각자의 자발성이나 상호간의 협동과 우애에서 민중적 품성을 구현하는 곡마단원이 Sissy에게 미친 영향력은, Coketown에 살면서 Sissy가 발휘하는 인간적인 순수함과 미덕의 원천인 것이다. 인간적 활기와 에너지로 충만한 곡마단은 공리주의적 계산방법으로 보자면 무가치한 것이지만, 공리주의가 자체하는 산업조직과 교육체계에 본질적으로 부재하는 것을 역으로 강조한다.

#### IV

이상에서 살펴본 Dickens의 작품 내의 인물들의 관계의 지배이념의 관점에서의 분석은 당대 사회 전반에 걸친 작가의 포괄적인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Dickens는 이 작품에서 피지배계급인 노동자계급과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억압받는 상황을 어느 특정한 개인의 문제로서가 아닌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적 상황으로 고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Dickens는 당대의 노동자계층의 고된 삶이 최대이윤추구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본질에서 비롯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르주아계급의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Dickens는 부르주아 자본가계급의 경제적 이데올로기로 채택된 공리주의의 자유방임주의 성향과 빅토리아시대의 도덕적 이데올로기인 복음주의가 부르주아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 노동자계층에 대한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실이 노동자계층의 열악한 삶을 초래하고 부르주아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깊은 골을 형성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Dickens는 Sissy나 곡마단을 집중화되는 자본주의 체제에 당대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계급

구조가 결여하고 있는 미덕을 구현하는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하나의 대안으로서 미흡한 이유는 그들이 구현하는 미덕이 현실세계에서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 할 정도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자본주의 체제의 완강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Sissy가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다소 비현실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소설이 발표된 당시의 사회가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에 집중화되고 통합화되어 어떤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이데올로기가 스며들 여지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빅토리아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수행하고 강화시키는 사회구조와 제도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 Dickens는 물론 빅토리아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억압적 사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전복하려는 혁명적 작가나 propagandist는 아니며, 이 작품도 그러한 의도에서 쓰여진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그의 사회비평은 사회제도나 억압적 권력기구를 통하여 빅토리아조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디킨즈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인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Dickens의 당대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은 이 작품의 중요한 성과이며 가치이다. Dickens는 당대의 관습이나 중산층 독자의 정서에 영합한 단순한 인기 대중작가가 아닌, 빅토리아조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반영된 계급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사회의식의 면에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 작품이 사회비평의 요소가 강한 소설이면서 문학작품으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당대 사회에 대한 Dickens의 날카로운 통찰력의 탁월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Dickens의 비판적 사회의식과 사회구조에 대한 통찰력이 남다르게 빅토리아조 산업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점은 특히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 Works Cited

- Althusser, Loui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ans. Ben Brewste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 Altick, Richard D. *Victorian People and Idea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3.
- Blake, Andrew. *Reading Victorian Fiction: The Cultural Context and Ideological Content of the Nineteenth-Century Novel*. Hounds Mills: Macmillan, 1989.
- Bodenheimer, Rosemarie. *The Politics of Story in Victorian Social Fic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 Brown, James M. *Dickens: Novelist in the Market-Place*. Hounds Mills: Macmillan, 1985.
- Collins, Philip ed. *Dickens: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1.
- Connor, Steven. *Charles Dickens*. Oxford: Basil Blackwell, 1985.
- Davis, Earle. *The Flint and the Flame: The Artistry of Charles Dickens*.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63.
- Davies, James A. *The Textual Life of Dickens's Characters*. Hounds Mills: Macmillan, 1989.
- Dickens, Charles. *Hard Times*. 1854. Harmondsworth: Penguin, 1985.
- Eagleton, Terry. *Criticism and Ideology: A Study in Marxist Literary Theory*. 1976. London: Verso, 1985.
- Hauser, Arnold. *The Social History of Art*. vol. 4.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7.
- Johnson, Edgar. *Charles Dickens: His Tragedy and Triumph*. vol. 2. London: Gollancz, 1953.
- Leavis, F. R. *The Great Tradition*. Harmondsworth: Penguin, 1948.
- Miller, J. Hillis. *Charles Dickens : The World of his novel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 Page, Norman. *A Dickens Companion*. London: Macmillan, 1984.
-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Harmondsworth: penguin, 1982.

## Abstract

### The Social Criticism in Dickens' Hard Times

Hwang, Gyuh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ocial criticism in Charles Dickens' *Hard Times* focusing on the dominant ideology of the Victorian industrial society and the education. For this it deals with the ideological basis of the dominant class and its relation with the educational system by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characters.

In *Hard Times*, Dickens focuses on the class relationship in the industrial society represented by working classes squeezed and repressed by the capitalists. He criticizes the laissez-faire policy and the evangelicalism as the ruling ideology of the bourgeoisie. He centers around the educational system which emphasizes the reproduction of the labor power in line with the ruling ideology to maintain the capitalistic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ing class and the social system can be understood by linking the ruling class and its ideology to the problems of the industrial world and of its educational system.